현진기업, 인도네시아에 에너지 자립형 정수시설 구축

태양광·ESS 연계해 전력·상수도 부족지역 식수 공급
전남TP 지원으로 해외 실증…내년 정수설비 설치 완료

㈜현진기업이 최근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주 루우 우타라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자립형 정수시설 구축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지역 수처리 전문기업 ㈜현진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정수시설을 구축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현진기업이 최근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주 루우 우타라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자립형 정수시설 구축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현진기업이 현지에서 '에너지 자립형 컨테이너 정수 시스템 현지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에 착공으로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기술 해외 실증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해표산업이 참여기업으로 함께한다.

전남TP는 2025년부터 사업 발굴과 현지 협력 등을 지원해왔다. 사업은 전력과 상수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에 태양광 발전과 ESS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태양광 구조물과 ESS 시설, 정수시설 및 물탱크 기초공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정수설비를 현지에 설치하고 태양광·ESS와 연결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시운전과 운영교육, 운영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현지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임아름 현진기업 대표는 "단순히 정수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한국의 녹색기술을 현지에 적용해 성공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TP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전남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비R&D)을 통해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협력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세네갈과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지역기업과 관련한 19개 정부지원사업이 선정됐으며, 누적 지원규모는 185억원에 이른다.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화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전남TP는 해외협력사업 발굴과 해외지원사업협의회 운영, 서울대 국제에너지정책과정(IEPP)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축적된 해외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발굴부터 실증과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역기업을 지원하겠다"며 "K-에너지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광주 특성화고-연구기관, 반도체 현장 인재 양성

광융합산업진흥회 등 6개 기관 MOU…교육과정·현장실습 연계
현장실무형 미래인재 양성 협력…장비 활용부터 취업까지 지원

전남광주 특성화고와 반도체 연구기관이 손잡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최근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연구기관의 전문역량과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정보 교류를 비롯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교원 연수 및 전문가 교육, 학생 현장 견학·실습과 취업 연계 등에 협력한다.

연구기관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교육현장과 연결해 학생들이 연구·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관별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할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한다. 다만 이번 6개 기관 간 업무협약의 체결기관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서'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역량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인프라까지 연계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무교육과 현장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장비·인프라, 특성화고의 교육 기반,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연계하는 서남권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장비 활용 중심의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현장훈련과 인턴십,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안신걸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인재양성은 연구기관과 교육현장, 산업현장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현장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추석 전 4697억 화폐 공급

지난해보다 654억원 늘어…발행액 16.2% 증가

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급된 화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추석 전 10영업일인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전남광주지역에 공급한 화폐가 발행액 기준 46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43억원보다 654억원(16.2%) 증가한 규모다.

최근 추이를 보면 추석 전 화폐 발행액은 2023년 4727억원, 2024년 5182억원에서 2025년 404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 올해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2024년과 비교하면 485억원 적은 수준이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은 44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63억원보다 535억원(13.5%) 증가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로 지난해 7일보다 짧지만, 추석 전 공급된 화폐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5만원권 발행액은 4005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85.3%에 달했다. 지난해 3431억원보다 574억원 늘었으며, 전체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9%에서 85.3%로 소폭 높아졌다.

화폐 환수액은 200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121억원(15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은 449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추석 전 화폐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발행액 가운데 5만원권이 85.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GICON, '2026 호남지역 정보보호 해커톤 대회'

11월 6~7일 화순 금호리조트서 개최…고등학생까지 대상 확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화순군 금호리조트에서 '2026 호남지역 정보보호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GICON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호남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5개 팀, 최대 100명이 참가한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팀당 2~4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대학생 중심이던 참가 대상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정보보호 분야의 실전 역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대회가 확대됐다.

대회는 정보보호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CTF(Capture The Flag)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웹 해킹, 시스템 해킹, 포렌식, 리버싱, 암호학 등 분야별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겨룬다.

본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사전교육도 진행된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6개 과정, 20시간 규모로 운영되며 대회에서 다뤄질 주요 정보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대회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GICON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